

1인당 매출 9억·기계장비 3.6억 보유... 특허 年 2배씩 증가

데이터로 보는 10대 기업

(4)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 편중에 한때 실적 '흔들' 투자 꾸준히 지속, 미래경쟁력 강화 사업구조 다분화로 불안정성 완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천 M16 기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SK

SK하이닉스가 다시 비상(飛上)을 시작했다. 지난해 극심했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반등을 시작한 것. 오랜 기간 노력을 통해 내실을 쌓은 덕분이다. 단, 시황에 따라 실적 편차가 크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12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37.99%에 불과했다. 2018년(45.65%)과 2017년(82.56%) 2년간 급성장 직후 급격하게 떨어진 수치다.

총자산증가율도 -5.97%로 후퇴했

다. 2018년(27.16%)과 2017년(26.32%)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특히 순이익증가율은 무려 -85.51% 폭락했다. 2018년에는 65.71%, 2017년에는 515.18%를 기록했던 그 지표다.

1인당 매출액도 8억9399만원으로 전년(15억6309만원)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2017년(12억6955만원)보다도 30% 가까이 떨어졌다. 그 밖에 여

러 실적 지표도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해 반도체 시장 침체 영향을 짐작케 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2016년에도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총자산증가율이 -0.37%로 저조했고, 매출액 증가율도 -20.36%로 떨어졌다. 순이익증가율도 -65.68%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주기적으로 널뛰는 가장 큰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사업 구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사업 비중은 D램이 77%, 낸드플래시가 20%다. 메모리 반도체는 3~5년마다 '슈퍼 사이클'과 불황을 반복해왔으며, SK하이닉스도 이에 따라 큰 실적 변동을 겪었다.

단, 앞으로는 이런 불안정성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꾸준히 높아지는 분위기다. 실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꾸준히 지속하면서 미래 경쟁력을

더 강화한 데다, 사업 구조도 다분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속 중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분기 종업원 1인당 '기계장비 비율'을 3억5930만원으로 높였다. 전년(2억7501만원) 대비 30.6%나 늘린 결과다. 기계장비비율은 설비자산 중 기계장치의 종업원 1인당 보유 수준을 나타낸다. 2016년(2억605만원)에 전년보다 21.4% 높은 것보다 오히려 더 힘을 쏟았다.

생산성도 높아졌다. 종업원 1인당 자본집약도가 21억863만원으로 전년(19억4431만원)보다 8.45% 올랐다. 2016년(12억9493만원)에 전년보다 4.19% 상승한 것보다 2배나 효율을 높인 셈이다.

개발비도 꾸준히 늘리는 추세다. 2015년 1조9892억원에서 2018년 2조9014억원으로 늘렸고,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만 전년보다 11.60% 많은 2조3281억원을 투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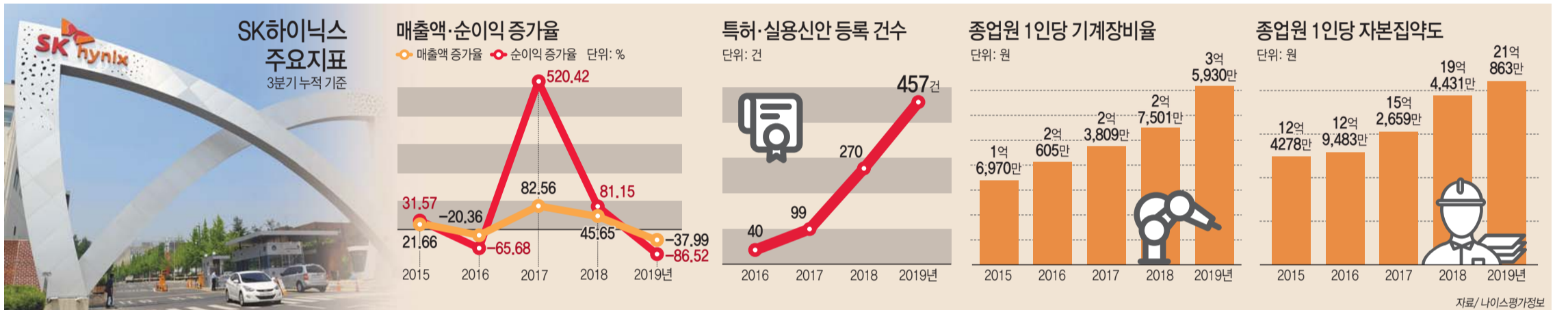
이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등록 건수

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중이다. 2016년 40건이었던 것이 2017년 99건, 2018년 270건, 2019년 457건으로 매년 2배 안팎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2일 기준 벌써 2건을 새로 등록했다.

신용도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18년 4월 AA-에서 AA0로 승급한 후 지난해에도 같은 등급을 지켜냈다.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 성장도 SK하이닉스 사업 안정에 긍정적인 요소다. 시스템아이씨는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를 맡아 2017년 창업한 회사로, 2018년 당기순이익 606억4912만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 중이다. 지난 10일에도 역대 최고가인 9만9000원을 기록했고, 추후 11만원에서 13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가전 중심서 모바일·모빌리티로 영역 확장

>> 1면 '일상에 들어온...'서 계속

관람객들은 주문, 음식조리, 서빙, 설거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들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공간에서 AI 경험을 보여주는 커넥티드 카, 아바타에 옷을 입혀보며 가상 피팅을 경험할 수 있는 생규 핏 콜렉션 등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 '엘리먼트 AI'와 손잡고 '인공지능 발전 단계'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구글은 자사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구글 어시스턴트가 적용된 기업들의 제품 100여 개를 전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 연구소 스타랩의 인공지능 프로젝트 네온도 큰 주목을 받았다. 눈을 깜빡이는 것부터 고개를 가웃거리는 모습까지 모두 실제 인간의 모습처럼 자연스럽게 때문에 향후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등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30분 간격으로 진행된 시연에는 매시간마다 네온의 모습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업종 간 경계 허물어진 모빌리티

미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모빌리티도 주목받았다. 특히 모빌리티 기업뿐 아니라 IT 기업이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이며 경계를 뛰어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소니는 프로토타입의 전기차 '비전-S'를 공개해 주목받았다.

공개된 차량은 소니의 이미지 및 센싱 기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 주행 경험을 선사하며 다양한 첨단 기술을 탑재해 전례 없는 수준의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총 33개 센서가 차량 360도 주변을 감지,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차량 안전을 보장한다.

요시다 쉐이치로 소니 사장 겸 CEO는 "지난 10년 동안 모바일이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면 앞으로의 메가트렌드는 모빌리티가 될 것"이라며 소니의 기술력이 집약된 차량 프로토타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자사의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 환경을 선보였다.

◆중국의 모방 정신 그대로

중국 업체도 압도적인 제품들을 대거 쏟아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타 업체 제품을 모방한 수준에 그쳤다.

그중 하이센스, TCL, 창흥, 스카이위스 등 중국 업체 4곳이 삼성전자 세로형 TV '더 세로'를 따라한 제품을 전시했다. 하이센스와 창흥은 회전이 자유로운 모습까지 그대로 구현했다. TCL과 스카이위스는 미술품을 화면에 띄워 작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삼성의 '더 프레임'과 유사한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엔 가전을 중심으로 전시됐던 CES가 점차 모바일, 모빌리티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uni2514@

바코드 인식하면 2~3초만에 물건 '척척'

(로봇크레인)

>> 1면 '온라인 주문제품...'서 계속

물건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2~3초로 매우 빨랐다. 쇼핑백에 담긴 제품을 픽업하자 바스켓은 이마트 계산대 위로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로봇 크레인은 일이 없을 때에도 계속 바쁘게 상하좌우로 움직였는데, 이는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주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시스템 앞에 한동안 머물게 했다.

이 시스템에 제품이 배송되는 것은 픽업 4시간 전에 이뤄지며, 야채·과일 등 식품의 신선도를 위해 내부는 시원하게 유지된다. 청계천점에서 외부로 나가는 SSG닷컴 물품 준비를 맡는 직원들이 청계천점 픽업 상품을 함께 준비해 바스켓에 싣는다.

픽셀 시스템은 지난 한 달 간 직원들이 상주한 가운데 시범 서비스를 거쳐 운영돼 이틀 간 오배송 등 문제는 없었다. 오히려 '로봇인가' 묻고 '신기하다'는 고객들의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특히 오픈 1주일간 선착순 50명에게 맞은 편에 임대 매장으로 같이 오픈된 달콤커피의 로봇카페 '비트'의 무료 커피 쿠폰을 제공해 고객 만족도와 이용률을 높였다.

다만, 초기여서 아직은 소수의 고객들에게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10일 이마트 최초로 청계천점에 오픈한 SSG닷컴이 운영하는 '픽셀(PIXEL)' 온·오프라인 통합 픽업 시스템. SSG닷컴에서 주문한 상품을 키오스크에 바코드를 입력하면 크레인 로봇이 배송해준다. /채윤정 기자



로봇 크레인이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키오스크 쪽 출구로 배송하고 있다.

기 돼 당일 픽업이 불가했다. 아직은 오전 중 주문한 제품 정도만 픽업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주문량이 많은 경우, 바스켓 2개에 나눠 배송이 돼 자칫하면 1개만 픽업하고, 두번째 바스켓 제품은 놓칠 수 있어 픽업시 전 품목이 픽업됐는지 잘 확인해야 했다.

SSG닷컴은 앞으로 픽셀 시스템을 다른 이마트 매장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계천점 이마트 매장 지하 2층의 일부 공간에는 외부에서 안에 보이는 물류센터가 구축됐다.

특히 이마트 픽셀 시스템 맞은편에 설치된 '비트' 카페에서는 로봇이 컵을 잡아 커피머신에 놓아주고, 컵에 담긴 커피를 고객에 전달해주는 풍경이 연출돼 하이테크 매장의 이미지를 더해줬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